

日 지진구호기금 4억 돌파

아름다운동행에 기탁...400여명 동참

사상 유례 없는 대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각계에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정성을 보내와 약 3주 만에 4억 원이 넘는 기금이 모였다. 지난 1일까지 모인 기금은 4억781만130원으로 집계됐으며, 단체 80여 곳과 개인 400여 명이 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과 서울 불광사 주지 대호스님, 고양 흥국사 주지 대호스님은 지난 3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화엄사와 흥국사는 지진 피해기금으로 1000만원을, 불광사는 송과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모은 1054만3500원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화엄사는 저비 나눔과 군포교 기금으로 3000만원을, 흥국사는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중마다 형편이 어려운데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내 줘 감사하다”면서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은 “교구에서 정성을 다 하 마련했다”며 “이번 기금이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월29일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우측)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다”고 말했다. 흥국사 주지 대호스님도 “신도들과 일본을 돕기 위해 모은 기금”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일본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희옥 동국대 총장도 지난 3월28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일본지진피해구호기금 1922만원을 전달했다. 김희옥 총장은 “다 대학보다 적은 액수이지만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교원과 교직원, 학생 모두가 자발적으로 보시한 기금”이라며 “다른 단체를 통해 전하는 것보다 종단의 기부법인을 통해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종립 학교인 동국대에서 종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모금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지난 1일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해 일본지진피해기금으로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국장 묘장스님, 이민용 대표, 오도선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인탁 홍다영 기자

일본지진피해 성금모금 명단(4월1일 현재)

△농협고객익명 43,160 △허정범 50,000 △김현화 50,000 △박평제 10,000 △김유형 100,000 △인육자 100,000 △부산일심회 300,000 △박영옥 30,000 △재차룡 200,000 △백열수 30,000 △일본지원 300,000 △이상혁 10,000 △김유정 50,000 △관음사 5,000,000 △일본지진성금 50,000 △문광식 10,000 △장희식 50,000 △일본돕기 20,000 △박준근 100,000 △김순희 20,000 △김영진 10,000 △장선미 100,000 △김재태 30,000 △심현숙 30,000 △박현숙 50,000 △장영석 30,000 △김정희 30,000 △이명자 30,000 △여동진 10,000 △최순애 50,000 △관음암신도 320,000 △김경희 200,000 △보현사(태연) 200,000 △백차현 20,000 △김현주 10,000 △박동규 10,000 △조홍식 30,000 △백인순 50,000 △최대구 100,000 △천수선 100,000 △윤종숙 50,000 △동국대학교 19,220,000 △지호 100,000 △강나영 10,000 △안단호 10,000 △지장사 20,000,000 △부산민족문화수호위원회 30,006,900 △안우근 10,000 △김기숙 50,000 △백승순 15,000 △고양 흥국사 10,000,000 △화엄사 10,000,000 △흥제사자비회 5,450,000 △정순열 100,000 △민경호 100,000 △유덕실 30,000 △종문사 500,000 △성문사 200,000 △의정부용주사 100,000 △관음사박순진 500,000 △이장혁 100,000 △박영옥 30,000 △이은경 50,000 △박성진 10,000 △박철민 10,000 △정철숙 50,000 △1051021425 20,000 △불광사 10,000,000 △해인사검외사 200,000 △송과복지센터 543,500 △이영복 200,000 △손미리/경찰 5,000

△양진영 30,000 △홍정숙 30,000 △최순애 50,000 △김경애 20,000 △고성일 10,000 △선각회 회장 지운스님 외 회원스님 12명 3,000,000

총 407,810,130원 모금

2011년 3월25일 정오부터 4월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집계(후원입금 날짜순으로 정리)

- 후원계좌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농협 053-01-247901 (예금주: 불교신문사)
- 후원문의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신문사 (02)730-4488
- 후원안내
www.thenanum.org

신임 원로의원 선출에 관심

조계종 원로회의 4월15일 개최

신임 조계종 원로의원 선출을 위한 원로회의가 오는 15일 개최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삼스님)는 오는 15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7차 회의를 개최해 신임 원로의원 선출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의 건 등을 논의한다.

최대 정원 25명 가운데 현재 21명

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대 4명의 신임 원로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원로의원 선출은 중앙총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난해 11월 제185회 중앙총회에서 종진스님(해인총림 해인사 율

주)과 근일스님(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암도스님(조계종 전 교육원장), 월주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이, 지난 3월 제186회 중앙총회에서 정관스님(부산 영주암 회주)과 해산스님(익산 대용화사 주지),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신임 원로의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원로의원 종하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도 진행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소청심사위원장에 범산스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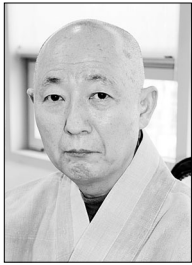
1일 30차 회의서...간사에 주혜스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장에 부산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7명의 위원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회의를 열고 임기 3년의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에 범산스님을, 간사에 성남원적정사 주지 주혜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소청심사위원장은 범산스님은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그동안 소청제도 자체를 잘 모르



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며 “조직만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중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총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총회 사무처, 호계원 사무처) 소속의 총무원 및 본말사 주지에 대한 징계회부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는 기관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현장에서 어린이포교 절실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본말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며 빼놓지 않고 전하는 당부가 하나 있다. 바로 지역포교, 특히 어린이포교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매번 잊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28일 덕문스님을 직영사찰인 강화 보문사 주지로 임명하면서 어린이포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화 보문사는 관음성지로서 대표적인 기도사찰이자 관광사찰이다.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포교와는 거리가 먼 사찰이다. 하지만 총무원장 스님은 “단 한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린이법회를 꼭 열어 달라”며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기도사찰이자 관광사찰의 신임 주지에게 어린이포교를 시행하라고 당부한 것은 그만큼 어린이포교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을 양성하는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전국 사찰의 어린이법회가 갈수록 위축돼 대웅전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도 어느 새인가 들기 힘들어졌다. 조기교육 시행 등 어린이포교의 제반환경이 변했다고

느꼈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민족문화 수호활동을 전개하며 2~3년만에 마칠 불사를 10년, 20년 걸리더라도 우리 손으로 회향하자고 제안했다. 어린이포교도 마찬가지다. 어린이포교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하다. 하지만 멀리 그리고 크게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접 펼쳐야 하는 대작불사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제2 전학과 발전에 써 달라”

보림사 혜진스님, 동국대에 1억 보시

서울 보림사 주지 혜진스님이 동국대 제2전학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스님은 지난 3월28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을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동국대학교 제2 전학과 발전에 소중히 써달라”며 지난 7년간 모아온 돈을 선뜻 기탁했다. 김희옥 총장은 “좋은 뜻이 담긴 제2전학기금을 직접 전달해주셔서 감격스럽다”며 “동국대학교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서울 개봉동 보림사 주지 혜진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혜원스님의 사형이다. 사제 혜원스님은 “혜진스님은 평소 수행자로서 청빈하게 살아야 할 것과 시주받은 돈은 항상 소중하게 사용하고 사회에 회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스님의 덕행이 다른 재가자들이 발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동참 및 후원 안내



■ 취지

- 실행·범회 소의 지역의 실질적 포교활동을 지원하여 현장에 도움을 제공
- 지역과 연계된 전법단의 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포교의 거점 및 중심으로 위상 정립
- 분야별·지역별 포교활동 진흥과 특수 분야의 포교활동을 우선적으로 촉진하여 포교활성화에 기여

■ 목표

- 주요 계층 및 광역 중심의 전법단 구성
- 포교현장 활동 스님의 발굴 및 전법단 조직 확대

■ 구성 경과

- 분야별 구성

분야	출범일시
병원 전법단	2010년 5월 12일
경찰 전법단	2010년 6월 28일
군 전법단	2010년 7월 14일
대학생 전법단	2010년 12월 1일
교정교화 전법단	2011년 1월 20일
이주민 전법단	예정
장애인 전법단	예정

- 지역별 구성

지역	출범일시
광주전남 전법단	2010년 10월 6일
성남 전법단	2010년 11월 1일
대구경북 전법단	2011년 4월27일
대전충청 전법단	예정
인천 전법단	예정

■ 구성 개요

- 지도법사단 : 본 종 승려로서 특정 분야에서 실제 포교활동을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분
- 전법지원단 : 본 종에서 발급한 각종 포교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 전법후원단 : 스님과 신도, 사찰 등에서 분야별, 지역별 전법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분과 단체

■ 후원 계좌

전법단명	후원계좌	예금주
병원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3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병원)
경찰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4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경찰)
군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65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군)
대학생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5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대학)
교정교화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832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교정교화)
광주전남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673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광주전남)
성남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80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성남)
대구경북지역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788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대구경북)

■ 동참 및 후원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지원팀 TEL 02-2011-1892~3, 1903 FAX 02-720-7065 E-mail : shyjieun@buddhism.or.kr / airjaeil@buddhism.or.kr

2011년 4월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충